

공간 시간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초대전 권승찬전...12월 9일까지
도예가 故 조기정 오마주한 설치·미디어 아트 등 20점
무등도요에도 작품 설치...CCTV 통해 실시간 연결

권승찬 작가의 '있다'전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전시실 입구에는 6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미술관 전시실 모습을 담은 화면과 함께 낮선 장소가 눈에 들어온다. 도자기를 구워내는 장작가마와 곳곳에 배치된 형광 램프가 눈에 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현장 화면에는 가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잡힌다.

권 작가는 시립미술관이 매년 한명씩 선정하는 청년작가초대전에 선발돼 전시를 준비했다. 전시에서는 설치, 평면, 미디어 아트 등 모두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두 가지 키워드는 '공간과 시간'의 '연결'이고 또 하나는 도예가 고(故) 조기정(1939~2007)과 '무등도요'의 존재다. 무형문화재 청자기능 보유자 10호, 전승자가 문호재 기능보유자인 조기정은 강진의 고려정자를 재현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한국의 대표 도예가다. 권 작가는 하정웅미술관과 함께 무등도요를 전시공간으로 택해 작품을 설치하고 CCTV를 통해 실시간 연결했다.

1전시실에 들어서면 '불현 듯 신기루처럼 영감을 무드를 타고'라는 네온이 먼저 눈에 띈다. 무등도요에서 가져온 수백개의 '갑발' (匣鉢·도자기를 구울 때 담는 점토로 만든 큰 그릇)을 자유롭게 배치하고 작가의 트레이드마크인 알록달록 다채로운 색감의 형광등을, 복잡한 전선 등을 그대로 노출한 채 배치해두었다.

2전시실의 '정물' 시리즈는 17세기 네덜란드 작가의 정물화 배치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작업이다. 사진 속 탁자 위에는 정물 화에서 으레 등장하는 포도·오렌지 등 과일과 함께 '백화수복', '보성녹차' 등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 '소품'을 함께 배치해 키치적 재미를 선사한다. 중요 역할을 하는 건 청자, 접시 등 조기정의 열정이 담긴 자기 작품들이다. 그밖에 조기정 작가의 삶을 토대로 1984년 무등도요에서 촬영된 백일섭·손창민 주연의 KBS 드라마 '연산강'도 만날 수 있으며 역시 무등도요에서 가져온 오래된 나무 뿌리도 전시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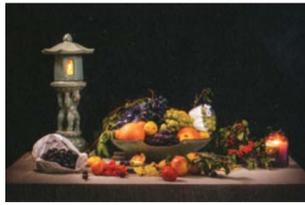
2전시실에서 재미있는 작품은 '있다'전의 시각을 공간적으로 확대한 백색 네온 작품이다. 전시장엔 미술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뒷문'을 사각형의 네온 형태로만 구현했고 건물 바깥에 '문'이라는 네온 작품을 설치, 연결점을 만들었다.

3전시실의 네온사인이 전하는 글귀는 '겉 없이 멋 모르고 식욕은 왕성했다'. 공간엔 조기정 선생이 제작한 자기와 평생 동안 수집한 유물들이 놓여 있다. 녹색 네온빛이 은은한 전시장 바닥을 가득 채운 수 천개의 편(片)들은 세월의 무게와 함께 한 작가의 장인정신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차로 20분 거리의 무등도요로 이동했다. 조기정 작가가 타계하기까지 머물며 작업을 했던 무등도요에서는 지금 아들 조장현 작가가 작업중이다. 일부 공간만 활용됐던 장소가 이번에 소박한 미술현장으로 변신했다. 무엇보다 오래된 장작 가마가 놓여 있는 공간이 흥



무등도요에서 전시중인 권승찬 작가의 작품 'LIFE IS LONG BUT THERE IS NOTHING TO DO'는 하정웅미술관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관람할 수 있다.



'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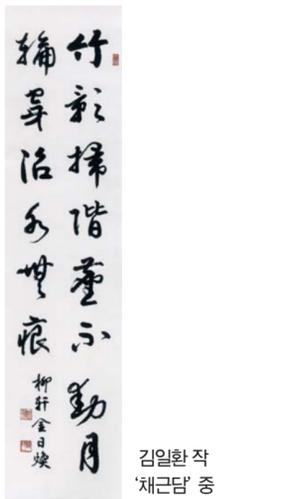
미롭다. 작게 난 창문 덕에 날씨가 빛의 이동에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선사하고 'LIFE IS LONG BUT THERE IS NOTHING TO DO'라 적힌 붉은 네온 사인과 형광램프의 조합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권 작가의 작품에서 텍스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가는 "사회 현상의 시스템을 설명하거나 홍보성 문구를 삶과 연계해 비트는 작업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하정웅미술관의 글귀들은 조 작가의 '메모'에서 따왔고 무등도요 공간에 설치된 글귀는 권 작가가 작업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다.

그는 '공간'에 관심이 많다. 특히 단절되고 잊혀진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난 2016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지하 병커에서 처음으로 전시를 열기도 했다. 북경 창작센터에 다녀온 2016년 무등도요 현관에 작업실을 마련했던 권 작가는 이 공간에도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보고 싶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 공간, 사라지는 사물과 전통 등에 관심이 많다. 오래

된 시간과 흔적이 남아있는 곳엔 언제나 스토리가 있고 공간이 주는 매력이 있다. 광주만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장소를 나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게 재밌다. 무등도요는 공간이 주는 압도감과 함께 조기정 선생의 흔적들이 모두 마음에 남았다. '전시 준비하며 '이 분이 참 큰 어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작품에 임하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 등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

권 작가는 "소통과 연결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번 전시를 발판으로 다양한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공간, 장르, 계층, 세대 등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는 12월 9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일환 작 '채근담' 중

필우회 회원전

15~20일 메트로 갤러리

필우회(筆友會·회장 김일환) 41회 회원전이 15일부터 20일까지 금남로 4가 지하철역 메트로 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 1977년 창립한 필우회는 삼락 서예원에서 송파(松坡) 이규형 선생의 지도를 받은 이들이 모여 만든 그룹으로 1979년 광주학생회관에서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번째 전시회를 연 이래 지금까지 회원전을 열고 있다. 회원들은 끊임없는 글쓰기 연습에 매진하고 있으며 양정태 회원 등 7명의 회원은 서실을 열어 지도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65명의 회원들이 서예 작품과 그림이 어우러진 문인화를 선보인다. '논어', '채근담', '목민심서' 등 고전에서 따온 글과 함께 이백, 이이, 이순, 기정진 등 선현들의 시 등을 다채로운 서체로 표현했다. 김종철·이기숙·채병기·김용진·김광호·김경수·박선옥 등 회원들이 출품했다. 문의 062-226-805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여름밤 풀벌레 소리 들려오네

김연호전 30일까지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Healing In My World'

2018년 로터스 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김연호 작가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린다.

'Healing In My World'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동화같은 아기가기 작품을 선보인다. 알핏 일러스트레이션처럼도 보이는 그의 유화 작품은 가벼운 터치와 화사한 색감 덕에 친근함과 편안함이 전해진다.

한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를 눈을 감고 감상하며 듣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가로

등 불빛을 보며 '평온'을 찾는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담아 그린 작품을 통해 관람자 역시 그런 평온을 느끼길 바란다. 나뭇잎을 엮은 모양은 풀벌레 소리에서 느낀 감정을 '시각적 소리'로 재해석해 들려주기 위해 차용한 소재다.

또, 벤치와 집, 가로등의 불빛은 자신의 슬픔, 행복, 불안 등 모든 것을 해소하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픈 마음을 담았다. 따뜻하고 화사한 색감은 감정을 표현하는 또 다른 도구다.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을 졸업한 김 작가는 소암미술관 영아티스트 지원프로젝트,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선정 작가 등으로 활동했다.

문의 062-383-007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위인·인연들의 얼굴 '푸른 사람들' 김갑진전 30일까지 고흥 도화현미술관



'권진규를 추억하며'

서양화가 김갑진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고흥 도화현미술관에서 열린다.

'푸른 사람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수영, 권진규, 헨리 데이빗 소로우, 장 그르니에, 슈베르트, 브람스 등 평소 동경하며 흠모했던 시인, 사상가, 철학자, 음악가의 초상 작품 4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우 등 그와 인연을 이어온 이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초상화도 함께 전시중이며 다양한 느낌의 자화상도 전시됐다.

화폭에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들은 자신의 삶을 오롯이 담고 있어 인상적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낸 조각가 권진규의 모

습은 강렬하고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았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표정은 온화하다.

이번 전시는 2018년 전남문화관광재단 레지던시 창작 지원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작업노트에서 작가는 "나는 언제나 그렇게 푸른 영혼들과 함께 꿈을 꾸며 삶을 노래하고 작가로서의 이상을 갈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갑진은 지금까지 11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120여회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1-832-133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안건축사업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주택 맞춤디자인 시공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6년무상A/S/정기점검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